

공연 정보

공연일정 2016. 7. 15(금) ~ 7. 16(토) 오전 11시

공연장소 포항시청 대강홀

소요시간 52분

관람대상 24개월 이상

관람료 전석 15,000원

할인 안내

20% 조기예매(~7/7까지) / 인원제한없음
여성 행복객석(다자녀, 다문화, 임신부) / 1인 2매
포항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1인 2매

30% 30인 이상 단체
PAC 문화회원 / 1인 2매

50% 장애인 1~3급 / 1인 2매
장애인 4~6급 / 본인만
국가 유공자 / 본인만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 본인만

교육특별할인 교육단체 20인 이상 / 공문접수만 인정

예매 안내

티켓링크 1588-7890

포항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054-280-9355



앤서니 브라운

돼지책

ANTHONY BROWNE PIGGYBOOK

2016

가족뮤지컬

집안일은 엄마만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통쾌하게 비꾸줄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너희들은
돼지야~



- ☑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 ☑ 한겨레 권장도서
- ☑ 어린이 도서연구회 권장도서

2016

7.15(금) 11:00

7.16(토) 11:00

포항시청 대강홀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대상 : 24개월이상)

예매처 티켓링크 1588-7890
문화예술회관 054.280.9355

엄마의 고마움과 행복한가정의 필요조건을 배우는 가족뮤지컬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예술회관의 기획프로그램 사업인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상내역

- ▣ 2002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 한겨레 권장도서
-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 작가 앤서니 브라운 ○

1946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Leeds College of Art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한 뒤, 3년 동안 맨체스터 왕립 병원에서 의학 전문 화가로 일했다. 'Leeds College of Art'에서 파트 타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15년 동안 Gordon Fraser 갤러리에서 연하장을 디자인했다. '고릴라'로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과 커트 매슬러 상을 받았고, '동물원'으로 두 번째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받았다. 2009년에는 영국도서관협회와 북트러스트에서 주관하는 영국 대표 어린이책 작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의 독특하고 뛰어난 작품은 국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미술관에 간 윌리(2001년)'와 '돼지책(2002년)'은 외국 번역 그림책으로는 드물게 2년 연속으로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초현실주의 화가인 마그리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앤서니 브라운은 사실적인 그림에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또한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머와 위트 넘치는 구성으로 풀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보고 깊이 공감하는 작품들이 많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 하는 것이 작품의 목적이라는 그는 그림 구석구석에 재미있고 기발한 장치들을 숨겨놓아 그림책만의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저서로는 '돼지책', '미술관에 간 윌리', '우리는 친구',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우리 엄마', '우리 형', '꿈꾸는 윌리', '윌리와 악당 벌렁코', '축구선수 윌리', '윌리와 휴' 등이 있다.



○ 제작의도 ○

모든 엄마들의 힐링도서라고 말하는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은 가정에서 엄마가 짊어지고 있는 역할과 희생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 놓아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몫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있다. 공동체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아빠 모두에게 권장하는 작품으로 아이들 스스로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엄마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공연이다.

○ 줄거리 ○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피곳씨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아들(사이먼과 패트릭)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늘 입을 크게 벌리고 아내에게 엄마에게 빨리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 하지만 합니다.

모든 집안일은 피곳부인 혼자 맡고 있습니다.

피곳부인 역시 직장에 나가지만 가족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지 출근전에도 퇴근후에도 집안일을 모두 혼자 해야 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날, 피곳부인은

“너희들은 돼지야!” 라고 쓴 쪽지를 남기고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